

남도예술은행 선정작가 기획전

전남문화관광재단, 예술작품 공모 12명 선정
오늘부터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갤러리 1·2관

전남문화관광재단과 유스퀘어 문화관이 남도 문화예술 및 관광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는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해오고 있는 남도예술은행 기획전시가 4일부터 10일까지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갤러리 1, 2관에서 열린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하는 전시는 2018년 예술작품 멤버십 렌트사업 임대작품 공모에 선정된 작품 29점을 새롭게 선보인다. 다양한 작품 확보와 지원 폭을 넓히기 위해 기존 작가 경력 제한을 해제해 추진된 이번 공모로 서양화, 한국화, 문인화, 조각 분야의 지역작가 12명이 선정됐다.

매년 예술작품 멤버십 렌트사업으로 선정된 작품은 지역 미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구입, 판매, 홍보 외에 기관, 단체 등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임대사업 대상이 공공기관과 기



조소작 '사랑'

업에서 개인으로까지 확대되어 작품임대를 희망하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작품임대 신청은 남도사이버갤러리(<https://art.jeonnam.go.kr>) 또는 전화문의(061-280-5824)를 통해 하면 된다. /이연수 기자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 들려준다

11일 유스퀘어 문화관, 허원숙 피아노 리사이틀

심도있는 탐구를 통해 작곡가의 의도와 가치를 끌어내는 피아니스트 허원숙이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 음반 발매 기념으로 리사이틀을 갖는다.

11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바흐 음악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는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직접 감상할 수 있다.

이번 연주회는 모든 프로그램이 바흐로만 구성된다. 바흐의 토크타로 첫 시작을 알리고, 이어 바흐-부조니 사르너로 그녀만의 남다른 해석과 표현 능력을 선보인다.

2부에서는 건반음악의 최고봉이라고 일컬을 만큼 연주자의 깊이있는 해석과 극한의 연주력이 요구되는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들려준다. 허원숙은 서울음대 기악과와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 피아노과를 졸업했으며, 유학 중 바르샤바 국제콩쿠르 1위를 비롯해 비오티 국제콩쿠르, 포츨리 국제피아노콩쿠르, 마르살라 국제콩쿠르에 입상했다.

서울국제음악제, 아시아작곡연맹 국제음악제, 프랑스 카잘스 페스티벌 등 다수의 초청 연주와 독주회를 가졌고,



활발한 연주활동과 더불어 KBS클래식FM '당신의 밤과 음악' 프로에서 3년간 '허원숙의 피아니스트 플러스' 코너를 진행했다.

유스퀘어 문화관 관계자는 "음반이 아닌 실황으로 만나보기 어려운 연주회인 만큼 클래식 애호가와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이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석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062-360-8437. /이연수 기자



시립미술관 본관 야경



'미술주간' 온 가족 함께 즐겨요

오는 14일까지는 2018미술주간으로 전국의 국·공·사립 미술관과 비영리 전시공간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 미술주간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민들의 미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추진한 국내 최대 규모 미술 행사로 올해로 4회째다. 광주시립미술관과 예술의 거리에서도 미술주간을 함께 즐기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고 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2018미술주간을 맞아 미술관 스탬프 투어 및 아트 나이트 행사를 개최한다.

오는 14일까지 '미술관 가자'를 주제로 기간 내 광주지역 소재 미술관 5곳 이상을 둘러보고 스탬프를 받아오

시립미술관 스탬프 투어·아트 나이트 예술의 거리서 만나는 '신 재미장터'

면 미술관에서 준비한 기념품을 증정하는 '미술관 스탬프 투어' 행사가 진행된다.

미술관 스탬프 투어 행사에는 시립미술관 본관, 사진전시관, 하정웅 미술관을 비롯해 조선대미술관, 의재미술관, 우재길미술관, 은암미술관, 무등현대미술관, 국운미술관, 주안미술관, 소암미술관, 드영미술관이 참여한다. 5곳 이상의 미술관을 방문, 스탬프를 받아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안내 데스크로 가져오면 된다.

아트 나이트 행사는 5일 오후 6시

본관 전시실에서 열리는 큐레이터 작품설명회에 이어, 오후 7시부터 옥상정원에서 가을 음악회가 진행된다.

시립미술관 아트 나이트 행사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광주 예술의 거리에서는 미술퍼레이드 '신(新) 재미장터'가 열린다.

5일부터 10일까지 예술길 29번지 건물 3층과 지하 1층에서 아트컴퍼니 모이모가 주관하는 'Young&New'로 서양화, 한국화, 미디어, 현대공예 등 다양한 장르의 50여명 작가 작

품 150점이 전시·판매된다. 중견 작가부터 청년 작가까지 다양한 세대의 예술작품을 만날 수 있다.

미디어아티스트 신도원 작가의 스튜디오로 사용하고 있는 전시 공간 3층은 가브리엘, 김명우, 박세희, 문창환, 신도원 작가의 미디어아트와 음악이 어우러진 미디어아트 존으로 꾸며진다.

5일 오후 6시 오프닝에는 NOP DJ HMM의 디제잉 퍼포먼스를 비롯해 미니 옥션을 진행한다. 이조흠 작가가 경매를 이끈다. 이어 네트워킹 나잇파티가 열려 분위기를 돋운다.

7일 오후 4시에는 미디어아티스트 진시영 작가와 함께하는 일일아트스쿨이 '현대미술과 미디어아트'를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이연수 기자

10월 대인예술시장, 영화를 품다

'화양영화' 주제 네 차례 예술야시장 진행

10월 대인예술시장에서는 영화를 소재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대인예술시장별장프로젝트는 '화양영화(花樣映畵)'를 주제로 오는 6일, 13일, 20일, 27일 네 차례 예술야시장을 개최한다.

유별난 예술극장에서는 '별이 빛나는 밤'을 주제로 각테일 쇼와 성악, 인형극,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

을 선보인다. 6일에는 SD각테일컴퍼니의 각테일 쇼를 시작으로 장수연의 통기타 연주와 버블타이거의 버블 쇼가 관객을 맞는다. 13일에는 NINE 재즈 듀오의 영화 OST 연주, 더드림싱어즈의 성악 공연, 아프리카타악그룹 아나포의 타악 난장이 선사하는 이색 하모니를 만끽할 수 있다.

20일에는 극단 도깨비의 인형극 공연, 아마다댄스쿠르의 역동적인 춤사위, 미디어아티스트 Hail&선만이 보여주는 미디어아트 디제잉 퍼포먼스 'Touch'가 진한 울림을 선사한다.

27일에는 푸피양상들의 디즈니 OST 공연에 이어 DJ박태진과 함께 영화음악 속으로 추억여행을 떠난다. 순수무용단이 진행하는 영화 라라랜드·씨니 퍼포먼스도 감상할 수 있다.

별장 사무국 앞에서는 6일 가로등뮤직의 어쿠스틱기타·건반 연주, 13일 스타카토리퍼블릭의 핑거스타일 기타 연주 등 버스킹 공연이 펼쳐져 가을의 정취를 북돋운다.

키즈존에서는 한글날을 앞둔 6일 나랏말싸미를 주제로 북마켓, 한글 책갈피 만들기, 한글뱃지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며, 20일에는 광주동부소방서 119 안전센터의 도움으로 CPR(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한다.

27일에는 토이스토리를 주제로 영화(마블) 가면 만들기과 영화포스터 그리기 등 영화 관련 체험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이연수 기자

SUNLAKE VILL 전원마을 조성단지



세울터건축사사무소(주)

전원주택, 부지 매매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상담후 결정
- 문의. 010-6834-7400